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
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, 이제 그만!
50인(억)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!

수신	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
발신	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(생명안전행동)
제목	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 기자회견
일시/장소	2024년 01월 26일 오전 10시 / 용산 대통령실 앞
주최	민주노총, 생명안전행동
담당	생명안전행동 최민 (010-7767-9618),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차장 조진영(010-9913-9250)

1. 노동자·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분투하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2024년 1월 26일(금)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.
3. 1월 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되는 날입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, 한국사회가 그 동안 노동자의 생명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드러냈고, 안전을 ‘진짜’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회적 논쟁을 제기하였습니다.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고, 실제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
4.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내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쉼 없이 지속되었습니다. 위험법률심판 신청, 50인(억)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기도,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기론 조장이 그것입니다. 그 사이 기소는 느리고 처벌은 여전히 약하며, 50인(억)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
5.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현 상황에 대한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.
6.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. <끝>

※ 붙임 : 기자회견 순서 1부

■ 기자회견 순서

기자회견 순서	
	사회: 정우준(생명안전행동, 노동건강연대)
1	기자회견 취지 발언 : 조영선 (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, 생명안전행동 공동상임대표)
2	현장 발언 : 강한수 (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장)
3	산재피해자 유족 발언 :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, 김용균재단 이사장
4	전문가 발언 : 권영국 (변호사,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)
5	이미선 (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)
6	기자회견문 낭독